

붕괴 위험 건물 방치했다 '날벼락'...어처구니없는 '人災'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건물 붕괴 9명 사망

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고 시민들 차도 통행 등 불안 상존 "안전 조치 없이 쌓아둔 건물 뒤 흙더미 무너져 참변" 지적 국과수 등 오늘 합동 현장점검...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사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버스를 덮쳤다. 현장 주변 주민들은 재개발·철거 공사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건물 앞의 버스 승강장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면, 공사 현장에 피해 차도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명 탑승한 시내버스 덮쳐...8명 구조= 9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연면적 1592㎡)이 붕괴되면서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인 운림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날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승객 중 이날 밤 10시 현재, 여성 7명과 남성 2명 등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고가사다리·구조·구급차 등 55대의 장비와 141명의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 매물 2시간여만에 A(여·76)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끔찍'=사고 당시 건물 주변은 오후라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 주민들은 만약 출·퇴근 시간대였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윤모(54)씨는 "평소에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승강장 뒤에 세워진 공사 가림막으로 불안전했다"면서 "길 건너편에 고등학교가 있어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붕괴된 5층 규모의 건물(1592㎡)에는 당시 철거 공사를 위해 2명의 작업자가 포크레인을 동원, 건물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외부에도 인도에서 공사장 접근을 막는 인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이들은 철거 공사 중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 작업자들이 인도로 접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버스의 접근 통제 등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소방당국, "붕괴 원인 파악 중"=인근에 있던 목격자 유필숙(여·57)씨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우르르'하고 땅이 울리면서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져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현장 수습이 이뤄지는대로 1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3~4일 전부터 건물 뒤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건물쪽으로 기울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 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건물 상가에 입주한 주민은 "포크레인이 며칠 전부터 쌓아놓은 흙더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토사를 쌓아두는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소극적인 안전 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현장 내 재개발 공사를 위해 쌓아놓은 토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거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버스를 덮쳤다.(위) 119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하필 버스 정차하는 그 순간에... 생사가 2~3초에 안타까움

참혹했던 참사 순간

"3초만 늦어도 모두 살았을 텐데..."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 영상이 1시간여 만에 광주 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영상이 공유되면서, 밤 사이 시민들은 흑사나 하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약 3초 만에 건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버스가 몇 초만 늦게 왔어도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회사원 김모(54)씨는 퇴근길에 지인이 울면서 뛰어 가던 모습에 이유를 물었다가, 부모님이 건물 붕괴사고로 덮친 버스를 탔다는 얘기를 듣고 방연 자살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주변 공중전화박스를 지나던 노인 한 명이 허겁지겁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모면하는 장면이 담겨, 보는 이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and 빌딩.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with their respective detail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대지/임야,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자동차, and 기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with their respective details.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주의사항
1. 매각된 부동산은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며, 최후에 매각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매각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8.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각자가 부담하며, 매각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매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각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